



중례 IV-3

전치부의 임플란트 즉시 매식에 의한 수복중례

김승준*, 최대균, 권공록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과 보철학교실

단일치아 결손시 과거의 치료 방법에 3 unit bridge를 이용하여 수복하였으나 건강한 인접치를 삭제, pontic의 비심미성, 불청결성의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 임플란트의 발달로 단일치아 결손시에도 훌륭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 임플란트를 이용한 단일치아 결손부 수복에 있어서 기능과 심미의 조화로운 수복을 원하고 있다.

상악 전치부에 있어 즉시 매식은 다음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완전한 골의 치유와 치조와의 재골화에 필요한 약 12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 임플란트 자체가 치아상실 후에 따르는 치조제의 흡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 수술횟수가 줄어든다.
- 환자가 무치악 상태로 지내는 기간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치조와의 치유와 임플란트의 치유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발치후 골치유 단계는 임플란트 식립시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상악 전치를 발거한 후 협측 피질골판의 30%가 까이가 초기에 흡수된다는 보고가 있다.

이에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함으로써 초기에 협측 피질골판의 흡수를 막아주고 hygiene type 임시의치를 사용하여 fixture에 부하를 주지 않고 2차 수술 2주 후 transmucosal 임시의치를 이용하여 연조직의 형성을 도모하여 이 임시의치를 복제한 임시의치를 이용하여 fixture와 형성된 연조직의 최종 인상을 채득 함으로써 심미적인 임플란트 보철 수복을한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